

전체기사 뉴스 오피니언 사람들 포토·영상

실시간 | 민주평통 브라질, 상파울루시 구청에 마스크 500장 기증

핫뉴스 | 외국인 보유 토지, 전 국토의 0.2%...전년 대비 3% 증가

HOME > 뉴스 > 북미

재미한국학교협의회 '차세대 교사 교육위원회' 첫 모임 개최

呂 서정필 기자 | 승인 2020.01.27 18:17 | 댓글 0



| 2021년 8월 말까지 차세대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추진



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필라델피아 르네상스 에어포트 호텔에서 '제1대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회' 첫 모임을 가졌다. (사진 재미한국학교협의회)

재미한국학교협의회(총회장 오정선미, NAKS)는 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'제38회 재미한국학교 전국학술대회' 개최 장소인 필라델피아 르네상스 에어포트 호텔에서 '제1대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회' 첫 모임을 가졌다.

이번 모임에는 오정선미 총회장을 비롯해 ▲한연성 부회장 ▲심수목 부회장 ▲이상훈 교육간사 그리고 제1대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을 역임한 한상화 교사와 이영학 교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.

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는 미국 내 14개 지역협의회 산하 800여개의 회원 학교가 있으며, 한국어는 물론 동포 후세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 역사문화 교육에도 힘쓰고 있는 비영리단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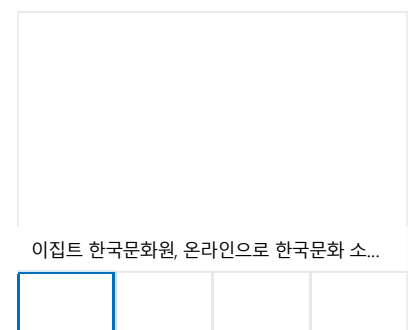
그런데 현재 소속 7,000여 교사 가운데 대부분이 1세대여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후세교육을 위해 자연스럽게 차세대가 학교 교육의 전면에 나서기 위해서는 신규 교사 발굴과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

이 과제를 해결하고자 협의회는 5년 전부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차세대 교사 워크숍을 통해 차세대 교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해 왔지만 기대만큼 차세대 교사들이 늘어나지 않았고, 그 이

최신뉴스

-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, 말레이시아와 경제협력 방안
- 코로나19 K-진단키트 1호 특허 나와...국군의무사령
- 민주평통 브라질, 상파울루시 구청에 마스크 500장
- '한국 경찰의 코로나 19 대응' 영문자료 제작해 세계
-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, 한곳서 원스톱 처

포토뉴스



이집트 한국문화원, 온라인으로 한국문화 소...

인기뉴스

1 월드옥타, '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' 주제

2 제21대 국회의원선거, 민주당 압승으로

반으로 현지화 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어 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의 한글과 정체성 교육에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협의회 측의 판단이다.

이러한 흐름에서 미전역 14개 지역 협의회 소속 1.5세나 2세 차세대 교사 중 선발된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들은 더 많은 동료 차세대 교사들이 한국학교 및 협의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며 미래를 계획하고자 하는 취지로,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회 사업을 추진 중이다.

협의회 측은 "제1대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은 2021년 8월 31일까지 ▲차세대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▲차세대 교사 워크숍 ▲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기자단 운영 ▲차세대 교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.

교육위원회의 첫 활동은 "SNS를 활용해 재미한국학교와 협의회를 차세대 교사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"이라고 협의회 측은 밝혔다.

저작권자 ©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서정필 기자
다른기사 보기



주요기사

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, 말레이시아와 경제협력 방안	코로나19 K-진단키트 1호 특허 나와...국군의무사령부	민주평통 브라질, 상파울루 시 구청에 마스크 500장 기

북미 "코로나19로 어려운 한인 도와달라", 조선 왕손들 LA '코로나19'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미국 지역 한인들을 위해 조선 왕족 후세들도 도움을 손	'한국 경찰의 코로나 19 대응' 영문자료 제작해 세계	북미 美 주민들, 연방상원의 대북제재 강화 요청에 항의 미국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위원장(공화, 콜로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이슈포토

관세청, 해외 가족에 마스크 발송 시 묶음발송 허용	해외 거주 며느리·사위·형제·자매에게도 보건용 마스크	코로나19 확산으로 캄보디아 교민사회 위기 봉착
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, '코로나19 해외동포 상황보고	캄보디아,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	민주평통 인도네시아 자문위원들, 모국 '코로나19' 국

- 3 외국인 보유 토지, 전 국토의 0.2%...전년
- 4 한국 지난해 공적개발원조 규모 25.2억
- 5 월드컵, 대전서 6월 개최 예정이던 세
- 6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, 범정부 실무
- 7 주캐나다한국대사관, 코로나19 극복 캠페
- 8 국립중앙박물관, 초등학교와 온라인 원
- 9 이집트 한국문화원, 온라인으로 한국문
- 10 구우울 AG진 대표, LA 동포 '코로나19 지원'에 10만 달러 기부